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노소정 연구원, 광주광역시 표창...투자유치 활성화 공로

- 분과별 기획위원회 운영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광주 에너지산업의 정책·기술·현장 수요를 연결하며 협력 허브 역할 수행
- 기업 투자유치 연계 BM 개발과 지원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와 협력 플랫폼 구축에 기여



▲ (왼쪽에서 첫 번째)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노소정 연구원이 4월 10일(금) 투자유치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노소정 연구원이 광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 구축과 기업 투자유치 연계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월 10일(금)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 연구원은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사업·R&D 기획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기술교류회 및 행사 기획·운영 ▲기업 투자유치 연계 지원 등 폭넓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광주광역시 에너지 산업의 기반 강화에 기여해 왔다.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은 GIST가 광주광역시·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서」에 따라 광주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과 정책 개발을 목표로 2015년 GIST에 설립됐다.

매년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과 정책·산업 수요를 반영해 주제별 에너지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은 ▲분산에너지 ▲배터리 ▲수소 ▲광주형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생태계의 방향을 논의하고 기획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의 고도화하기 위해 '르네상스 에너지' 분과를 새롭게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의 전문가들을 위한 에너지 산업 기술교류회, 전문가 세미나, 자문회의 등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광주·전남 통합설명회와 광주형 에너지 사업모델(BM) 개발 세미나·자문회의를 운영해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에너지산업 비전과 발전 방향을 지역 소재의 기업·기관과 공유했다. 또한 투자 의향이 있는 지역 소재의 기업들을 타깃 기업과 연결해 실질적인 연계 성과를 창출했다.

에너지 산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 상·하반기에 에너지 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총 2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협력 과제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 밖에도 ▲RE100 세미나 ▲청록 수소 세미나 ▲광주 미래산업 EXPO ▲BIXPO 2025 컨퍼런스 등 주요 에너지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며 정책·기술·투자 정보를 연결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노소정 연구원은 "광주 에너지 산업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이 광주와 지역 기업,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은 에너지 산업 협력 기반의 확대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KEET 2026)'에 참가한다.

이를 통해 광주형 에너지 사업모델 개발과 분산에너지·수소·배터리 분야 기획 성과를 알리고, 관련 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